

도, 공감의 전북형 자치행정 추진

자치행정국, 활력 있는 직장문화 조성·소통 도정과 시군과의 협력강화 등 통해

전북도 자치행정국은 '함께 가는 자치도정, 다가서는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감의 전북형 자치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한 조직내부 소통강화 및 공정한 인사운영 시스템구축, 도, 시, 군, 도민과 열린소통 강화와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과 고품질 세정서비스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및 계약집행과 쾌적한 청사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북도는 일 잘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직원들의 업무능률성 제고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하이시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정책 벤치마킹 분야를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가족친화 프로그램,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1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사운영과 취약계층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신규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합치·소통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정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도정과 시군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2월부터 연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하라” 25일 서울 평창동 정몽준 현대중공업 이사장 자택앞에서 진흥 정무부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과 및 도의원, 시의원, 군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500여명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릴레이 시위 출정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지사 시군 방문을 추진하며, 이번 방문지는 시군별 도정 3대 핵심사업 강화를 위해 수시로 '전라북도 시군 현장을 방문해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간 수평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수시로 '전라북도 시군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시·군 현안 사항에 공동 대응기 위해 부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며, 실각장 지역책임제를 실시해 시군의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특히 전북도는 미래 창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다.

아울러 도는 올해 자체수입 9,935억 원 징수 달성을 목표로 세원발굴과 체납세 해소를 위해 상시 T/F팀 등을 운영한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시스템 구축·운영,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으로 지방 자재원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업무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전년대비 평균 2.9%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금액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제한 초과외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철저 준수 및 지역업체 참여가점을 부여하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도 하도급지킴이 대상을 종합공사 5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2020년 전북 대도약을 위한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 역할과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대 주차장 설 연휴 무료 개방

26~31일까지 6개 통제소 모두

전북대학교가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교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개방 기간은 연휴가 본격 시작 되는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6시까지.

전북대는 이 기간내 정문, 동문, 북문, 중앙도서관 옆문, 박물관

문, 수의·치대문 등 6개 통제소를 모두 개방해 도민 및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는 매년 명절 등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거점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설 명절 '한우·돼지고기' 소비량 감소

전년 동기 대비 한우 15%·돼지 19% 정도 감소

전북도는 도내 도축장 8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설명절 도축 검사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해 한우는 15%정도, 돼지는 19%정도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24일 기준으로 한우는 2016년 3,767마리의 85%수준인 3,222마리가 소비됐으며, 돼지는 2016년 14만2,684마리의 81%수준인 11만5,414마리가 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축산물 소비 감소의 원인은 경기 불황 및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20일 현재 한우(600kg 기준)의 산지

가격은 전년 동기 666만원보다 116만 2,000원 낮은 549만1,000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돼지(110kg기준)는 전년 동기 34만4,000원 보다 2만4,000원 높은 36만8,000원을 형성하고 있다.

한우고기 가격은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돼지는 어미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로 가격이 약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명절 이후 축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단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팬클럽 등이 지방단위 조직으

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결혼이민자 명절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결혼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의미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명절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떡국 만들기, 명절 놀이 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문화에 낮은 결혼이민자들이 문화차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결혼이민자들과 마을주민이 직접 마련한 설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고, 즐기면서 명절의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인재용 기자

전주남부시장, 전북 대표 시장

전북의 대표 전통시장은 명실공히 전주남부시장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 인포그래픽스 3'호에서 전북 전통시장을 조사한 결과 상설시장 31개, 정기시장 26개, 상설·정기시장 8개 등 도내에 총 65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태별로는 상가전물형(59개)이 가장 많고 소유 유형별로는 공설(39개), 지역별로는 익산(12개)에 많은 시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규모별로는 면적기준으로는 전주남부시장(2만1,349㎡), 점포수 기준으로는 전주중앙시장(370개), 상인수 기준으로는 전주남부시장(950명)이 최대 규모이며, 역사와 전통은 전주남부시장(78년)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용 기자

도, 설 연휴 대설·한파 비상근무체제 돌입

27일~30일 비상대응팀 구성... 24시간 상황관리·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가동

전북도는 설 연휴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설·한파대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도에서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 시군에 '대설·한파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설 연휴기간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시군 재난관계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분야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설 연휴기간 대설·한파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재난종합상황실을 24

시간 상시 운영하고 대설·한파 등 예비특보 이상시 근무인원을 보강해 상황유지를 하고 도·시·군·유관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립예상지역 등 취약구간 예찰과 시내구간 고갯길 중점제설과 적설량에 따른 제설횟수 증가와 서민 밀집지역과 응달지역 잔설제거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관과 상수도계량기 등 수도시설 동파시 자체와 긴급보수인력을 지원하고, 농·축·수산시설 피해에 방호령 홍보와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인력·장비·물자를 지원하

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역방송과 SNS문자,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대설·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기간 전북지역은 26일 늦은 밤부터 27일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조금 올것으로 전망돼 대설·한파 등에 따른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갑작스러운 기상변동 상황에 대비해 도와 시군이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가동'으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